# ‘25/26시즌 강원지역 겨울철 관광 경기 현황과 시사점

□ **[개황]** 강원지역 겨울철 대표 관광콘텐츠인 겨울축제와 스키장의 ‘25/26시즌 방문객 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각각 △6.3%*, △15.3%를 기록

* 태백산 눈 축제를 제외하고 계산한 경우 방문객 수는 7.6% 감소

○ 방문객 규모 측면에서 비중이 큰 화천 산천어 축제의 내방객 수가 14.5%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

**강원지역 겨울축제 방문객 수**

(만명, %)

| 축제명 | 2023년 | | 2024년 | | 2025년 | | 2026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방문객수 | 증감률 | 방문객수 | 증감률 | 방문객수 | 증감률 | 방문객수 | 증감률 |
| 화천 산천어 축제 | 130.0 | - | 153.0 | 17.7 | 186.0 | 21.6 | 159.0 | -14.5 |
| 인제 빙어 축제 | 20.0 | - | 0 | -100.0 | 0 | - | 0 | - |
| 태백산 눈 축제[1)] | 30.6 | - | 58.5 | 91.2 | 52.6 | -10.1 | - | - |
| 홍천강 꽁꽁 축제 | 15.0 | - | 16.5 | 10.0 | 23.0 | 39.4 | 27.0 | 17.4 |
| 평창 송어 축제 | 40.0 | - | 32.0 | -20.0 | 22.7 | -29.1 | 25.0 | 10.1 |
| 대관령 눈꽃 축제 | 10.0 | - | 10.0 | 0.0 | 10.0 | 0.0 | 12.3 | 23.0 |
| 합계 | 245.6 | - | 270.0 | 9.9 | 294.3 | 9.0 | 275.9 | -6.3 |

주: 1) ’26년 태백산 눈 축제 방문객 수 자료는 부재하여 ’25년 방문객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’26년 전체 방문객 수를 계산하였으며, 태백산 눈 축제를 제외하고 계산한 경우 7.6% 감소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, 축제 보도자료

○ ‘25/26시즌 영동과 영서지역 스키장 방문객 수는 각각 16.8%, 14.3%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영동지역은 감소 전환했으며 영서지역은 감소세가 지속

**강원지역 스키장 방문객 수[1)]**

(만명, %)

| | 23/24시즌 | | 24/25시즌 | | 25/26시즌[2)]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방문객 | 증감률 | 방문객 | 증감률 | 방문객 | 증감률 |
| 영동 | 57.9 | - | 60.1 | 3.8 | 50.0 | -16.8 |
| 영서 | 92.5 | - | 87.1 | -5.9 | 74.6 | -14.3 |
| 합계 | 150.5 | - | 147.2 | -2.2 | 124.7 | -15.3 |

주: 1) 강원지역 7대 스키장의 내장객 수 합(리프트 발권기준)
2) 조사 당시(2.19일 기준) ’25/26시즌은 미종료 상태로 2.20일~폐장일 방문객 수는 ’25/26시즌 2.19일까지의 누적 방문객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
자료: 기업 모니터링 조사

□ **[부진 요인 및 평가]** ① 기온 상승 등 전국적 기후변화 요인, ② 역대급 한파 등 지역적 요인, ③ 해외여행 증가 및 레저활동 다변화 등 소비행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
①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상승*은 강원지역 겨울축제와 스키장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

* '00년 대비 '25년 강원 영서지역 평균기온은 0.7℃, 영동은 0.3℃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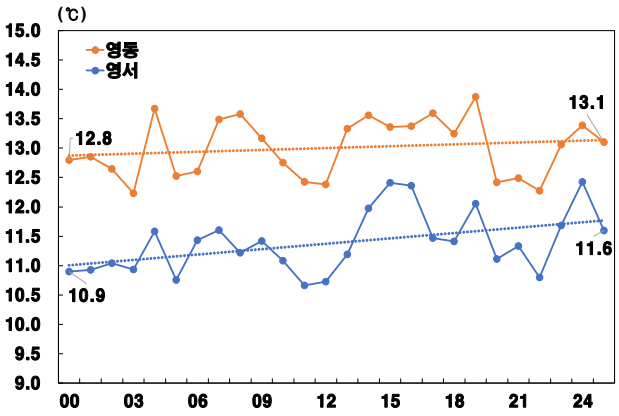
— 인제 빙어축제(2009년 138만명 방문)는 결빙 여건 미충족으로 '23년부터 3년 연속 개최에 실패

— 전국 스키장 이용객이 감소하는 가운데('10/11시즌 648만명 → '25/26시즌 435만명)*, 개장 지연과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폐업**도 증가 추세

* 특히, 모니터링 결과 경기권 스키장의 내장객 증감율은 △20%대로 강원권보다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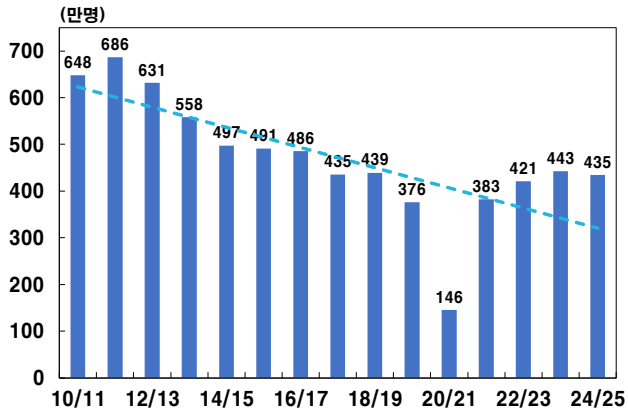
** 개장일이 가장 빠른 용평리조트는 10년 전에 비해 1주일 이상 늦어졌으며(11.21일 개장), 양지파인리조트(용인)와 베어스타운(포천)은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폐업

**강원지역 평균기온**




자료: 기상청

**전국 스키장 슬로프 이용객 현황[1)]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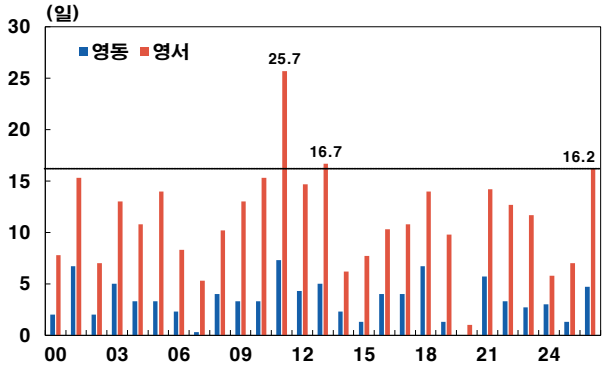

주: 1) X축은 시즌, Y축은 이용객 수, 점선은 추세를 의미
자료: 한국스키장경영협회

② 또한, 영서지역의 기록적인 한파는 겨울축제 등 야외활동을 제약*하는 요인으로 작용

* 이지영(2025)은 강원지역 평균기온이 0.1℃ 상승시 강원지역 관광업 매출액은 0.12% 증가하는 반면, 겨울철 한파와 같은 극한기후가 0.1일 증가시 관광업 매출은 0.06% 감소한다고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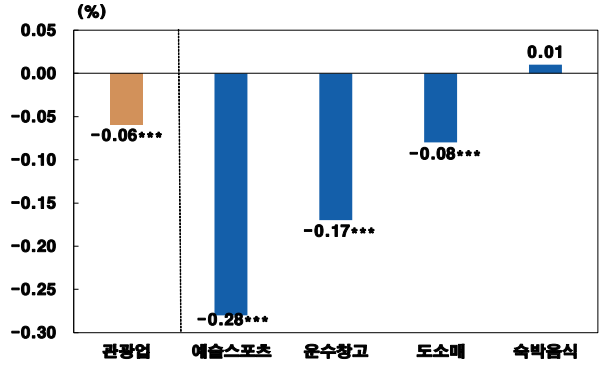
— 강원지역 겨울축제는 주로 1월 중 개최되는데, 금년 1월 중 영서지역의 한파일수는 16.2일로 2000년 이래 3번째로 높은 수준

**강원지역 1월 한파일수[1)]**




주: 1) 지역별 평균 한파일수를 의미
자료: 기상청

**극한기후의 증가가 관광업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[1)2)]**




주: 1) ***는 1%에서 유의함을 의미
2) 월중 극한기후 일수가 0.1일 증가할 때의 변화를 의미
자료: 이지영(2025)

③ 지난해 지속된 소비 부진, 해외관광 수요 증가, 겨울철 레저활동 수요 변화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스키장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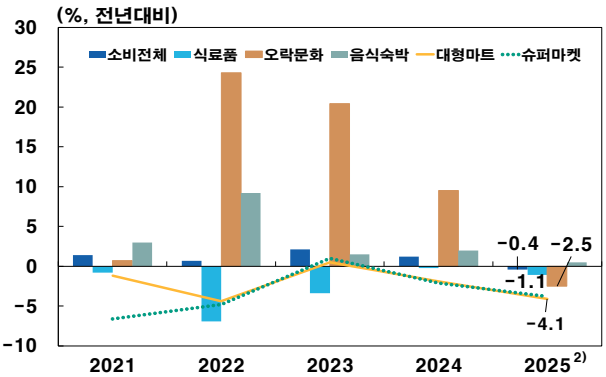
— '25년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(가계동향조사)은 전년 대비 0.4% 감소하였으며, 세부 항목으로는 식료품(△1.1%)과 오락·문화(△2.5%) 등이 감소*

* 판매자 측면에서 소비지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 중,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지수는 각각 전년대비 4.1% 3.8% 감소('25년)

— '25년(동절기 기준) 해외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9.7%, '26년은 4.1%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('19년 1,032만명 → '26년 1,115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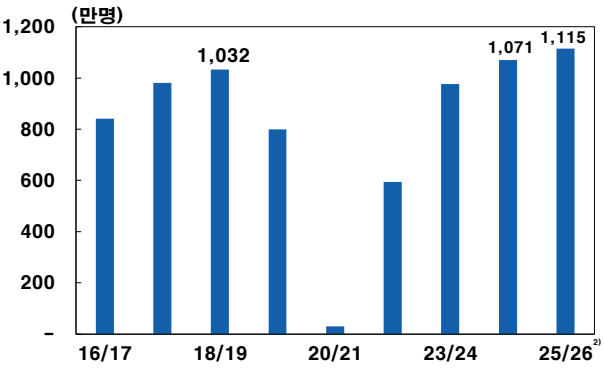
— '25년과 '26년 1월 합계 기준 레저업종별 신용카드(신한·농협·하나카드) 매출 비중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실외골프(△3.2%p), 스키장(△0.7%p) 등은 감소하고 실내골프(+4.1%p), 당구(+1.3%p), 수영(+0.4%p) 등은 증가

**전국 소비지출 변화[1)]**




주: 1) 막대는 가구 실질 가계지출 증감율을, 꺾은선은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의 증감율을 의미
2) '25년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는 잠정치
자료: 가계동향조사,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불변지수(2020=100)

**동절기 해외여행객 수[1)]**




주: 1) t-1년도 11~12월과 t년도 1~2월 해외여행객 수 합계
2) '26년 2월 값은 '25년 1~2월 전년 대비 증감률을 활용하여 추정
자료: 한국관광데이터랩

□ **[시사점]** 강원지역의 겨울철 관광산업이 기후변화와 여가·레저 수요 변화로 위협받고 있어, 향후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이를 보완 및 대체할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필요

○ 일부 시군(강릉, 삼척, 태백, 양구)에서 성과*를 보이는 **동절기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**를 도내 전역으로 **확대하기 위한 노력**** 필요

* '26년 강릉, 삼척, 양구 지역에 방문한 선수단의 연(延)인원#은 약 9.5% 증가('25년 9.1만명 → '26년 10.0만명, 지자체 보도자료 및 도내 언론자료 활용)

# 연(延)인원은 일정 기간에 동일 인물이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방문할 경우 그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누적 인원

** 실내 체육관 개보수 및 증축 지원, 인근 시군과의 협력 유도 등

○ 최근 피겨스케이팅, 컬링 등 동계 스포츠에 형성된 **일반인의 잠재적 체험 수요**를 **동계 스포츠 시설*과 연계**한 새로운 관광모델을 육성

* 旣 구축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빙상장(강릉, 춘천)외에도 태릉 국제빙상장(이전 추진 중이며, 춘천·원주·철원 등이 유치 선언)을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 필요

— 특히, 상대적으로 경기규칙이 어렵지 않고 다수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컬링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관심이 급증*한 데 반해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

* 한국갤럽(2018)에 따르면 컬링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종목 중 1위를 차지

○ 강원지역의 겨울철 **자연자원**(바다, 온천, 설산 등)**과 대규모 숙박시설*을 연계한** 강원특화형 **복합·전시(MICE)사업**의 개발 및 지원**

* 대규모 숙박시설과 스키장을 보유한 강원지역 내 리조트는 수용인원 측면에서 광역 및 수도권 지역의 국제컨벤션센터를 대체할 충분한 시설을 보유

** MICE는 Meetings, Incentives, Conventions, and Exhibitions의 약어이며, 2023년 강원지역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전국 5위(84건)#로 강원지역에서도 MICE 수요가 존재(한국관광공사)

# 1위 서울(384건), 2위 부산(163건), 3위 제주(116건), 4위 인천(88건)

— 컨벤션 및 숙박(대형리조트), 먹거리(동해안 회센터), 체험 및 휴식(골프장, 온천, 요가·명상센터) 등을 연계한 MICE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인 회의 지원